

주민의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태도에 미치는 영향 - 대둔산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논산시민의 태도를 대상으로-

Influences of Self-Monitoring of Residents on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Attitudes of Resident's in Nonsan Towards Development of Mt. Daedun-

이걸재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Keol-Jae Lee(keoljae@konyang.ac.kr)

요약

본 연구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와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 논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개발의 참여의식, 개인의 자기검색성향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자기검색성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와 관광개발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기검색성향과 관련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개발의 참여의식에 모든 요인들이 2배에 가까운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자기검색에서 타인지향성 성향을 갖춘 지역주민들이 증가되면 될수록 관광개발에 있어서 관광개발의 참여 활동에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 질 것으로 기대된다.

■ 중심어 : | 관광개발 태도 | 관광개발 참여 | 자기검색성향 |

Abstract

This article was examines an attitude towards Tourism Development that has relevance to social psychological differences of individuals in terms of social psychological research on Tourism Development. It used the self-monitoring scale developed by Snyder(1974) who focused on individual behavior, which has been recently paid attention in the field of social psychology. It is considered that the result of this study contributes to academic world from two extensive points of view. One is that this study was conducted without any previous studies on self-monitoring and was performed to arrange the concept of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in the stream. Another one is that this research proved the influence of self-monitoring on the citizen's propensity towards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toward economic impact,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toward social impact and with the tendency of participating in tourism development. Finally,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that has relevance to social psychological differences of individuals.

■ keyword : | Tourism Development | Self-Monitoring | Tourism Development Attitude |

I. 서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반응과 태도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이해하는 것은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긍정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5]. 이러한 맥락 속에서 최근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및 개발지지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첫째, 성공적인 관광개발을 위해서는 관광객과 지역주민의 관광에 대한 지각과 태도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2]. 이것은 지역주민의 협력, 지지, 참여가 없이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 때문이다. 둘째, 주민의 태도는 지역의 다양한 개발단계마다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주민의 태도와 관여는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의 변화에 맞게 주민들의 태도와 성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셋째, 관광에 대한 주민태도는 공간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지역의 위치에 따라 주민들의 태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인식 속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대한 연구는 시간과 장소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고,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형성과정 및 영향요인을 연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변화 시켜 놓을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관련하여 지역주민의 개인적 속성과 특성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형성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는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대한 정의는 관광이나 관광개발을 통해 발생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며 이러한 영향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및 정서적 반응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한 변화 될 수 있

는 것이기도 하다[32]. 관광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응을 이해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사회교환이론, 관광개발 사이클, 세분화 이론 등이 있다. 사회교환이론은 관광의 긍정적인 영향들은 편익으로 지각하게 되고 부정적인 영향들을 비용으로 지각하여 관광개발로 인한 비용이 편익보다 크게 되면 지역주민은 관광과 관광개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며, 반대로 지각된 비용보다 지각된 편익이 크게 되면 지역주민은 관광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는 것이다. 사회교환이론은 지역개발의 일환으로서 관광개발은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줄 중요한 경제적 활동으로 여겨져 왔으며 관광개발의 영향에 대한 주민의 태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체계로 이용되어져 왔다[2].

관광개발주기 모형이란 관광개발에 따른 지역주민의 태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개발 상황의 변화에 따라 그리고 관광객의 증가에 따라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는 관광개발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부정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35]. 한편,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의 복잡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세분화된 접근의 필요함을 주장하였다[19]. 지역주민의 연령, 학력, 직업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이나 주요 관광중심지와 거리, 관광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11], 거주기간[1], 관광객과의 상호작용 정도[6], 지역사회의 애착도[24], 지역주민의 속성으로 사회심리학적 개인차[27]등에 따라 관광영향 지각에 차이가 있음을 밝혔다.

고동원[23]은 제주도 주민을 대상으로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관광개발에 따른 개인적 혜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 만족도는 높지만 관광개발에 대해서는 부의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강미희와 김성일[21]은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들의 관광영향에 대한 지각과 국립공원 지정 및 관리방향에 대한 태도를 연구한 결과 지역주민들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관광영향에 대한 지역주민의 지각과 태도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삶의 질이나 관광개발 수준 등의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및 태도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금

까지의 관광태도 모형은 관광영향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인구통계학적 특성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지역주민들의 상황적 특성들(예, 관광개발에 대한 인식, 지역의 경제적 상태)과 신면(예, 지역에 대한 관심, 환경에 대한 관심)등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었다. 또한, 관광개발에 따른 관광영향 인식의 제 영향변수 및 관광개발 지지와의 상호 관련성이 어떠한 인과관계로 설명될 수 있는지 구조적인 해석이 요구되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지역사회는 다양한 견해를 갖는 집단과 개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른 태도를 나타낸다. 관광개발의 특성과 개발단계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비용과 편익이 제공되고 지역주민들이 갖는 개인적 특성, 사회적 환경에 따라 관광을 바라보는 시각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 측면이나 사회 환경적 측면에 대한 지각내용에 따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도 각기 다를 수 있다. 관광개발에 대한 영향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은 관광개발이 지역사회에 대하여 긍정적·부정적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이고, 이러한 이유로 관광영향에 대한 논의는 관광의 기반이자 대상이 되는 지역주민의 영역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본 연구는 관광개발 지역주민의 개발에 대한 태도 형성과정에 관심을 두고 시작되었다. 특히,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나 인식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다고는 하지만, 대체로 기술적인 연구가 많았고 이론적인 기반이 취약하다는 Ap[2]의 비판처럼 관광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가 어떻게 형성되고, 지역주민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지,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 지지 의사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등과 같은 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다는 것은 관광개발 지역주민의 태도이론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 할 수 있다[3].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역주민이 지각하는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경제적 구조, 사회적 구조, 환경적 구조 등으로 구분하여 관광개발 태도의 구조적인 측면에서 영향요인을 파악하려고 한다.

2. 참여

주민참여는 일반적으로 지역의 정치 및 행정,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견을 투입하기 위하여 행하는 주민의 행동을 말한다[36]. 관광개발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보장은 주민들이 개발활동에 효과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동원하고 수동적인 객체가 아닌 사회적 주체로서 행동하며 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그들의 삶의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통제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것이다[37]. 기존의 연구결과를 고찰해 보면 주민의 관광개발에서의 지역주민의 참여행동에는 참여내용, 참여대상, 참여방법, 사업의 특성 및 환경 등에 따라 참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31].

본 연구에서 주민참여는 관광개발에 지역주민들 스스로 자신의 역량을 동원하여 사업의 주체로서 행동하며 자원을 관리하고, 스스로 결정하여 마을의 관광자원을 개발하고 도시민과의 교류를 통하여 마을의 활력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활동에 주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기검색(Self-monitoring) 성향

자기검색(Self-monitoring)이란 자신의 표현 행동의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상황적 단서에 자신을 맞춰 자기관찰, 통제, 관리를 하려는 성향을 말한다[14]. 구체적으로 말하면, 높은 자기 검색 성향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내적 정보에 따르기 보다는 상황적 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선택을 통제하고 규제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하는 행동의 사회적 적절성을 평가하고, 대인관계와 주변 환경에 관한 정보를 중요하게 여겨 상황에 맞추어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람은 이성과의 교제에 있어서 상대방의 태도나 가치관등의 내면세계보다는 외모를 중시하는 경향이 높다.

이에 비해 자기검색성향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내적상태, 태도, 소질 등의 내적정보에 근거하여 자신의 행동선택을 규제하고 조절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행동에 대한 적절성의 판단을 상황에 따라 달리 하는 것이 아니라 자

신의 간직한 여러 내적 특성에 근거하여 판단함으로써 자신의 사회적 행동이 상황이나 경우에 상관없이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성향을 갖는다.

최근까지의 연구들은 자기 검색 성향이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특정한 사회적 상황에서 어떠한 다른 행동을 보이는데 집중되어 왔다. 이들은 직업선택이나 [17], 광고의 효과[15], 광고유형선호[33], 데이트 상대 유형 선호[20], 수줍음의 정도[25]등 에서도 자기검색성향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간의 차이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자기검색성향이 친구관계의 형성[15]이나 이성교제, 그리고 진로선택에 따른 차이가 있음이 밝혀졌다. 그 밖에 자기 검색 성향을 남녀 성별에 따라 비교한 연구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우가 자기검색 성향의 점수가 높았다[10][15].

이처럼 자기검색성향은 그 성향의 방향성에 따라 일정한 태도 및 행동패턴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을 고려 할 때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역시 자신의 표현 행동의 사회적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상황적 단서에 자신을 맞춰 자기관찰, 통제, 관리를 하려는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기검색성향이라는 사회심리학적 척도를 관광분야에서 적용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으나, 주로 개인의 자기검색 성향의 개인적 차이가 개인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고려 한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예를 들어, 여가활동 속에서의 친구와의 교제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자기검색성향이 높은 사람들의 여가활동에서의 교제는 주로 기술이나 전문성을 가진 타인과의 교제를 중시하고 여가활동분야별로 친구관계를 행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16], 관광지 지역주민의 자기검색 성향의 고저에 따라 관광객과의 교류활동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12]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국내에서 이걸재 & 지진호의 연구[27]에서 자기검색성향과 관광개발태도의 관련성을 검토한 연구가 있으나 자기검색성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의 인과관계까지는 규명을 하지 못하였다.

관광개발이라고 하는 측면은 지역의 진흥뿐만 아니라 관광객이라고 하는 다양한 인물과 비교적 원만한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지역의 관광개발에 따른 변화

에 대해서도 유연한 태도를 가지는 성향이 높은 사람일 수록 관광개발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관광개발에 대하여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주민들의 자기검색성향을 판단하여 그들에게 관광개발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완화 할 수 있는 적절한 광고나 홍보 방안 등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자기검색성향과의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그 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자기검색성향의 패턴을 사회구성원으로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심리학적 개인적 차이라고 정의하고 각각의 개인적 특성이 관광개발 태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구체적으로 고찰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조사설계

1.1 연구과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 과제를 설정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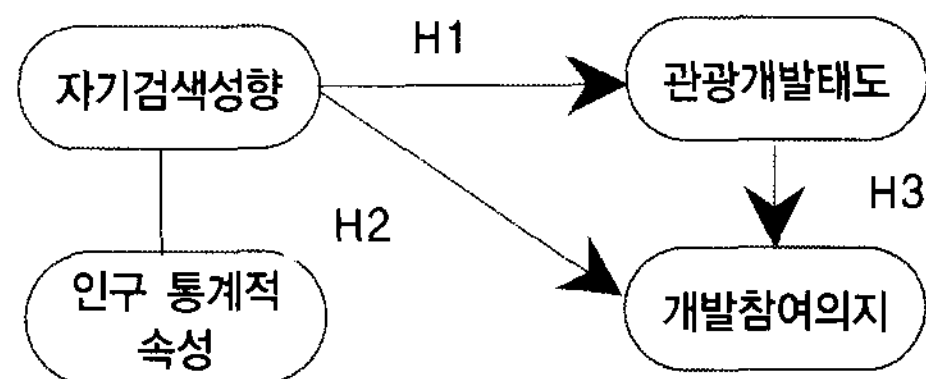


그림 1. 연구 모형

연구과제1: 자기검색성향은 관광개발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과제2: 자기검색성향은 관광개발 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과제3: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는 관광개발참여의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2 조사 대상지역

본 조사는 논산시 거주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논산시 거주주민을 조사 대상으로 한 배경은 최근 논산시에 위치하고 있는 대둔산 도립공

원 개발의 찬반과 관련하여 주민간의 갈등 양상이 보인다는 점에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중심과제로 선정한 본 연구에 적합한 대상지라고 판단되어 조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였다.

1.3 조사항목의 설정 및 설문지 구성

본 설문지는 관광개발의 태도에 관한 항목, 자기검색 척도에 관한 항목, 조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항목 등으로 구성되었다.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관한 항목을 선정하기 위해서 관광학과 전공학생 및 논산시 공무원 각각 20명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2006년 5월1~5월15). 사전조사에서는 Lankford and Howard [8]에 의해 개발된 관광영향태도 척도(TIAS: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와 대둔산 도립공원의 개발과 관련된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1994년 Lankford and Howard에 의해 개발된 관광영향태도 척도(TIAS: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는 서구권 국가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동남아 등에서도 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관광영향태도척도는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구성 되어 있는데 첫째 요인은, 지역관광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변수들로서 지역관광홍보의 단계와 정도, 지역관광개발의 영향통제와 개발계획과정에서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 포함 되어 있으며, 둘째 요인은 개인과 지역사회의 이익 즉 편익측면과 관련된 변수들로서 지역사회의 하부구조와 공공서비스, 개인적 여가기회, 직업, 개인적 지역적 차원에서의 관광의 경제적 역할 등이 포함 되어 있다[7].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를 측정하는 TIAS의 구조는 지역마다 서로 다른 구조를 보이지만 척도로서의 유효성은 가지고 있다고 판단한다[22].

최종적으로 본 조사에서는 사전조사를 통해서 응답이 애매모호한 질문을 제거하고, 질문형식은 관광개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질문만으로 9문항을 선정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또한,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의사는 향후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의사가 있다” 와 “관광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것이다” 와 같이 이분형

(0.1)항목으로 설문을 설정하여 각 요인들과 관광개발의 참여의사와의 관계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자기검색성향의 측정은 자기검색성향의 이론을 제시한 Snyder[14]가 최초로 개발된 25개 문항의 자기검색척도도 있지만, 그 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척도의 타당성 및 신뢰성의 검토가 이루어 졌으며, 그 이후 Snyder와 Gangestad[17]의 의해 18항목으로 이루어진 개정 자기검색성향척도가 개발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주일, 민경환[27]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것을 사용하고자 한다. 이주일 등에 의해 번역되어 측정된 18개 자기검색성향의 전체문항간 신뢰도는 $\alpha=.78$ 이었다. 이 척도는 전체 18개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10문항을 역으로 채점하며 만점은 18점이다. 각각의 문항은 ‘예-아니요’의 이분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2. 분석방법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본 연구의 모집단은 대둔산 도립공원(논산지구)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논산시민으로 규정하였으며 확률표본의 편의표본추출법에 의해 대둔산 도립공원 인근지역, 논산시내, 논산시 관할 읍/면/동사무소에서 2006년 7월1일부터 7월30까지 대인면접법을 통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50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중 응답내용의 정확성이 떨어지거나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55부(71.0%)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분석은 SPSS/PC 12.0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기술 분석과 다중회귀분석, 로지스틱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IV. 실증분석 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징

최종분석에 사용한 355부에 대한 조사대상자의 성별, 결혼여부, 연령, 소득, 직업 등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N=355)

구분	변수	빈도	%	구분	변수	빈도	%
성별	남	164	53.8	직업	사무직	86	24.2
	여	191	46.2		서비스	88	24.8
결혼 여부	미혼	221	62.3		자영업	13	3.7
	기혼	134	37.7		기술직	7	2.0
연령	20이하	1	0.1		전문직	58	16.3
	21-30	183	51.5		공무원	14	3.9
	31-40	119	33.5		주부	14	3.9
	41-50	38	10.7		학생	61	17.2
	51-60	13	3.7		기타	14	3.9
	61이상	1	0.1				
소득	200-299	92	25.9	소득	500-599	4	1.1
	300-399	39	11		600-699	3	0.8
	400-499	11	3.1		700이상	6	1.7

2. 신뢰성 및 타당성

표 2. 측정변수에 대한 요인분석 요약

요인명 (분산률)	자기점검항목	요인적 재량	아이겐 값	신뢰 계수
자기 검색 성향 (60.9%)	타인 지향	겉모습과 속마음이 항상 같지 않다 .895	3.467	.873
	싫어하는 사람이라도 좋아하는 척 .808			
	태연하게 거짓말도 할 수 있다 .797			
	다른 사람이 이야기 내버려 둔다 .690			
	좌석의 흥을 돋우는 사람 .607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처럼 행동 .579			
	행동을 꾸밀 수 있을 것 같다. .558			
	즉흥적으로 이야기 할 수 있다. .495			
	자기 중심	행동을 잘 모방하지 못한다. .801	1.845	.728
	사람들이 좋아할 행동을 하지 않는다. .772			
나는 훌륭한 연기자가 될 수 있다 .712				
여러 사람들의 관심의 중심이 아니다 .623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데 서툴다. .533				
관광 개발 태도 (58.1%)	경제적 태도	관광개발은 주민의 고용기회를 제공 .813	5.504	.871
	관광개발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가 .799			
	지자체 세수입 증대 .784			
	관광개발은 지역사회 경제에 도움 .685			
	사회적 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794	1.804	.713
	지역주민의 문화 활동을 촉진 .742			
	관광개발은 지역의 공공시설을 개선 .701			
	관광개발은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 .669			
	관광개발은 타문화를 이해 .593			

주) 요인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회전 방법: Kaiser 정규화가 있는 베리맥스.

자기검색성향 척도에 대한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전체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with kaiser monaliz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본 조사에서 사용한 18개 항목에 대해 2개의 요인을 추출 하였으나 일부 항목에 있어서 요인적재량이 기준치(.400) 이하로 낮은 문항이 추출되어 이러한 항목을 삭제 하고 최종적으로 13개 항목에 대하여 요인분석

을 재실시하였다.

그 결과, 타인지향성요인과 자기중심성향요인으로 명명 한 2개의 요인을 추출 할 수 있었다. 타인지향성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3.467이고, Cronbach's α계수는 .873으로 나타났다. 자기중심성향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1.804이고 Cronbach's α계수는 .728 로 나타났다. 2개 요인에 대한 총분산은 60.9%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항목에 대해 요인분석(주성분분석, varimax with kaiser monalization)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두 2개의 요인으로 구성되었는데, 각각 경제적태도요인과 사회적태도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먼저 경제적태도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5.504이고 Cronbach's α계수는 .8715로 나타났다. 사회적태도요인에 대한 아이겐 값이 1.845이고 Cronbach's α계수는 .713로 나타났다. 2개 요인에 대한 총분산은 58.1%의 설명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뢰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3. 연구과제에 대한 검증

3.1 가설1: 자기검색성향은 관광개발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표 3. 자기검색성향과 경제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 계수	t-test	공선성통계량		유의수준
	B	표준오차			Tolerance	VIF	
(상수)	3.535	.025		130.613			.000**
타인지향	.221	.025	.365	8.231	1.000	1.000	.000**
자기중심	.147	.025	.221	6.321	1.000	1.000	.000**

R2 :0.233, 수정된 R2:0.211. F변화량: 41.547 유의수준: ***p<0.01 Durbin-Watson : 1.998, 종속변수: 관광개발태도

먼저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 요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형의 설명력 R²는 0.233로 나타나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23.3%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41.547로 나타나 0.000수준의 유의 확률을 나타내었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정을 위해 Durbin-watson테스트를 실시하였고, Durbin-watson 통계량은 1.998로 나타나 임계치인 2.000에 근접한 값을

나타내고 있어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에서 자기검색성향의 타인지향(t-value=8.231, p<.01)과 자기중심(t-value=6.321, p<.01)은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표준화계수에서 타인지향이 자기중심 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지역주민의 자기검색성향(타인지향, 자기중심)은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표 3].

또한,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의 사회적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전체 모형의 설명력이 28.1%로 나타났으며, 분산분석의 결과 F값이 71.520으로 0.000수준의 유의 확률을 나타냈다. 또한 Durbin-Watson 통계량은 1.983으로 임계치인 2.000에 근접한 값을 보여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독립변수 자기검색성향의 타인지향성향이(t-value=10.034, p<.01)는 관광개발의 사회적 태도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표준화계수에 타인지향성향이 자기중심성향보다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표 4. 자기검색성향과 사회적 태도에 대한 회귀분석

구분	비표준화계수		표준화계수	t-test	공선성통계량		유의수준
	B	표준오차			Tolerance	VIF	
(상수)	1.687 E-16	.045		.000			1.000
타인지향	.415	.045	.431	10.034	1.000	1.000	.000**
자기중심	.325	.045	.302	7.931	1.000	1.000	.000**

R2 : 0.281, 수정된 R2:0.267, F변화량: 71.520, 유의수준: ***p<0.01
Durbin-Watson : 1.983, 종속변수: 건강식생활

3.2 가설2: 자기검색성향은 관광개발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역주민의 자기검색성향과 실질적인 참여행동의 관계를 검증하고자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Y(종속변수)의 값 '0'은 참여하지 않는 응답자, '1'은 참여한다고 하는 응답자를 의미한다.

검정 결과, 우도비 전체 통계량 34.610의 유의확률은 0.000<p=0.05이므로 관광개발의 참여 여부를 설명하는

데, 두 변수(타인지향, 자기중심)를 포함하는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의 유의확률은 0.555>p=0.05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적합도 검정에서 유의확률의 값이 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는 귀무가설을 채택되는데, Y(관광개발참여여부)와 X1(타인지향), X2(자기중심)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5. 자기중심성향이 관광개발 참여의식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 (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X1(타인지향)	.667	.120	23.471	1	.000	1.752	1.391	2.232
X2(자기중심)	.545	.122	12.849	1	.000	1.555	1.214	2.012
상수	.534	.117	23.231	1	.000	1.702		

우도비전체통계량: 34.610 유의수준: 0.000<p=0.05, Hesmer와 Lemeshow 검정: 유의수준 0.555>p=0.05
분류표 전체: 65.5%, 종속변수: 관광개발참여의식

결과에서, 관광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옳게 예측한 확률은 31.1%(42/72)이다. 그리고 관광개발에 참여 하는 응답자의 경우에 옳게 분류할 확률은 86.4%(190/283)를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옳게 분류할 확률은 65.4%이다. 타인지향의 회귀계수는 0.667이며,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통계량 23.471의 확률적인 표시인 p-value가 0.000이므로,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자기중심의 회귀계수는 0.545이며,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통계량 12.849의 확률적 표시인 p-value가 0.000이므로, p<0.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또한 회귀식의 상수 .534이고, p-value역시 0.000<p=0.05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따라서 회귀식은 다음과 같다.

$$\hat{Y} = 0.534 + 0.667X1 + 0.4545X2 \quad (식1)$$

회귀식에서 X1(타인지향)과 X2(자기중심)의 계수가 모두 유의하다. 상수의 Exp(0.543)=1.702이며, X1(타인

지향성의 $Exp(0.667)=1.752$, X2(자기중심)의 $Exp(0.545)=1.555$ 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의 값을 일정하게 놓고, 타인지향성이 1단위 증가하면 관광개발에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1.752배 늘어나고, 자기중심이 1단위 증가하면 관광개발에 참여할 확률은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1.555배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답자의 자기검색성향이 증가할수록 관광개발의 참여 확률은 높아질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3.3 가설3: 관광개발의 태도는 관광개발 참여의식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먼저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가 관광개발 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우도비 전체 통계량 38.578의 유의확률이 $0.000 < p = 0.05$ 로 관광개발의 참여 여부를 설명하는데, 변수(경제적 태도)를 포함하는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결과도 유의확률은 $0.594 > p = 0.05$ 이므로 모형이 적합하다고 할 수 있으며, 따라서 Y(참여의식) X1(경제적태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모형은 적합하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6. 경제적 태도요인과 참여의식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경제적 태도	.798	.129	36.548	1	.000	2.415	1.634	2.783
상수	.564	.118	21.790	1	.000	1.713		

우도비전체통계량: 38.578 유의수준 $0.000 < p = 0.05$. Hesmer와 Lemeshow 검정: 유의수준 $0.594 > p = 0.05$
 분류표전체: 65.3%, 종속변수: 관광개발 참여의식

경제적 태도의 회귀계수는 0.798이며,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통계량 36.548의 확률적 표시인 p-value가 0.000이므로,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회귀식의 상수 .564이고 p-value가 $0.000 < p = 0.05$ 이므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왔다. 따라서 회귀식은 다음과 같고, 회귀식에서 상수를 포함한 X1(경제적 태도)은 유의하다.

$$\hat{Y} = 0.564 + 0.798X1 \quad (\text{식2})$$

회귀식에 관하여 설명하면, 상수의 $Exp(0.564)=1.713$ 이며, X1(경제적 태도)의 $Exp(0.798)=2.415$ 이다. 따라서 경제적 태도가 1단위 증가하면 관광개발에 참여할 확률은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2.415배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응답자의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가 증가하면 할수록 관광개발 참여의식의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

또한, 관광개발의 사회적 태도가 관광개발 참여의식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우도비 전체 통계량 29.331의 유의확률이 $0.000 < p = 0.05$ 로 관광개발 참여의식을 설명하는데 변수(사회적 태도)를 포함하는 모형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고, 회귀모형의 적합성 검정 결과로 유의확률은 $0.274 > p = 0.05$ 이므로 모형이 적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사회적 태도 요인과 참여의식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

구분	B	S.E.	Wald	자유도	유의확률	Exp(B)	Exp(B)에 대한 95% 신뢰구간	
							하한	상한
사회적 태도	.675	.124	26.832	1	.000	1.933	1.483	2.457
상수	.565	.115	21.327	1	.000	1.935		

우도비전체통계량: 29.331 유의수준 $0.000 < p = 0.05$. Hesmer와 Lemeshow 검정: 유의확률 $0.274 > p = 0.05$
 분류표전체: 67.2%, 종속변수: 관광개발 참여의식

사회적 태도의 회귀계수는 0.675이며, 이 회귀계수는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하는 값인 Wald통계량 26.832의 p-value가 0.000이므로, $p = 0.05$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그리고 회귀식의 상수 .565이며, p-value는 $0.000 < p = 0.05$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hat{Y} = 0.565 + 0.675X1 \quad (\text{식3})$$

회귀식에서 상수를 포함한 X1(사회적 태도)은 유의하며, 이에 관하여 설명하면, 상수의 $Exp(0.565)=1.935$ 이고, X1(사회적 태도)의 $Exp(0.675)=1.933$ 이다. 따라서 사회적 태도가 1단위 증가하면 관광개발에 참여할 확률은 참여하지 않을 확률보다는 1.933배 늘어난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응답자의 관광개발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증가할수록 관광개발의 참여의식 확률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

IV. 결론

본 연구는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태도와 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충남 논산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개발의 참여의식, 개인의 자기검색성향에 대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먼저, 인자분석을 통해 자기검색성향은 타인지향과 자기중심성으로 명명된 인자를 추출하였으며,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요인으로 경제적 태도와 사회적 태도라고 명명된 2개의 인자를 추출하였다. 각각의 인자 간의 영향관계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시도하였고, 또한 관광개발에 있어서 실질적인 지역주민 참여 의식에 있어서의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지역주민의 자기검색성향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의 영향관계에 있어서, 자기검색성향이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와 관광개발의 사회적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구체적으로 자기검색성향의 타인지향성요인이 자기중심성요인보다 관광개발의 경제적 태도 요인 및 사회적 태도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은 기존의 연구결과에서처럼 사회적 활동(여가활동, 관광활동)에 있어서 자기 자신과 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자신을 변용시킬 수 있는 사람이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기검색성향과 관련하여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에 대한 영향관계를 확인하고자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관광개발의 참여의식에 모든 요인들이 2배에 가까운 영향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자기검색성향의 타인지향성요인이 자기중심성요인보다 관광개발 참여에 대하여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타인지향성이 강한 사람보다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보다 풍부하고 분화된 지식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기존연구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14], 자기중심적인 특성을 가진 사람들은 관광개발에 의해 지역이 발전한다고 하여도 관광개발에 의해 지역 환경이 악화되는 등의 부정적인 태도를 고려하는 등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광개발에 대

해 지각하고 있다고 추론할 수 있다.

또한, 관광개발의 태도요인과 관광개발에 대한 참여의식에 대한 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태도요인이 관광개발에 대한 사회적 태도요인보다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대상지역인 논산시 주민들의 관광개발에 대한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지각이 관광개발에 대한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행동을 야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하였다.

자기검색성향과 광고와의 관련성을 검토한 기존연구 결과에서 자기검색성향에 의해 가장 효과적인 광고가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9][14]. 즉, 자기검색성향이 타인지향적인 사람은 이미지 지향의 광고를 보면서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는 생각을 갖는 반면 자기검색성향이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품질이나 정보지향의 광고를 보면 상품을 구입하고 싶다고 생각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상기 연구결과와 본연구의 결과를 응용해 보면,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에 대한 지역주민 간의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논산시에서는 공원개발계획에 근거하여 대둔산 도립공원 개발을 실시하려고 할 때 관광개발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사람은 자기검색성향이 자기중심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에게 관광개발이 지역에 얼마나 많은 유익한 것인가를 직접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태도변용을 도모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역의 관광개발에 대해 주민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얻기 위해 지역주민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와 참여의식의 영향요인을 파악하는데 연구의 초점을 두었다. 특히, 관광분야에서는 다소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였지만, 심리학이나 교육학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진 개인의 사회심리학적 속성 중의 하나인 자기검색성향을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의 영향요인으로서 선정하였다는 점은 연구의 독창성이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먼저, 각 변수들 간의 이론적 부분이 미흡하다는 점과 각 변수별 총 분산의 비율이 사회과학분야의 60% 기준을 넘기지 못하여 변수들의 영향관계가 제한적이라는 점과 지역주민의 특정속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지역주민

의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및 참여 의식을 지역주민의 의사결정의 단계의 관점에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향후에는 변수들의 폭넓은 측정과 주민의 관광개발 태도 모델의 연구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의사결정과정에 의한 분석방법을 필요로 한다.

참고 문헌

- [1] L. R. Allen, P. T. Long, Perdue, and R. R. Kieselbach, "The impact of tourism development on resident's perception of community life," *Journal of the Community Development Society*, Vol.18, pp.89-103, 1988.
- [2] J. Ap, "Residents' perception on tourism impact,"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9, pp.665-690, 1992.
- [3] B. A. Carmichale, "A Matrix model for resident attitudes and behaviors in a rapidly changing tourist area," *Tourism Management*, Vol.21, pp.601-611, 2000.
- [4] D. Davis, J. Allen, and R. M. Cosenza, "Segmenting local residents by their attitudes, interests and opinions towards tourism,"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27, pp.2-8, 1988.
- [5] D. Gursoy, Claudia Jurowski, and Muzaffer Uysal "Resident attitudes a structural modeling approach,"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9, No.1, pp.79-105, 2001.
- [6] P. N. Hamid, "self-monitoring Locus of control, and social encounters of chinese and Newzealand students,"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Vol.4, w. w. Norton and Co, New York, 1995.
- [7] S. V. Lankford, "Attitude and perception toward tourism and rural regional development,"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32, pp.35-43, 1994.
- [8] S. V. Lankford and D. R Howard, "Developing a tourism impact attitude scale,"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21, pp.121-139, 1994.
- [9] R. Lennox and R. N. Wolfe, "Revision of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6, pp.1349-1364, 1984.
- [10] M. Nesler, J. T. Tedeschi, and D. M. Storr, "Context effects, self- presentation, and the self-monitoring Scale,"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Vol.29, pp.273-284, 1995.
- [11] P. E. Murphy, "perception and preferences of decision - making groups in tourism centers," *Journal of Travel Research*, Vol.21, pp.8-12, 1983.
- [12] T. J. Ohashi and T. Oguchi, "A Study on a social psychological variable for an attitude towards tourism," *Japan Institute of Tourism Research*, Vol.11, pp.1-6, 1996.
- [13] B. Parkinson, "Emotional stylist: Strategies of expressive management among trainee hairdressers," *Condition and Emotion*, Vol.5, pp.419-434, 1991.
- [14] M. Snyder, "Self-monitoring of expressive behavior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30, pp.526-537, 1974.
- [15] M. Snyder, "Public appearances, private ration." San Francisco: Freeman, 1987.
- [16] M. Snyder and K. G. DeBono, "Appeals to image and claims about qua: Understanding the psychology of advertis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9, pp.586-597, 1985.
- [17] M. Snyder and S. Gangestad, "On the nature of self-monitoring: Matters of assessment, matters of validit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51, No.1, pp.125-139, 1982.
- [18] M. Snyder and J. A. Simpson, "Choosing friends as activity partners: The role of self-monitor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5, pp.1061-1072, 1983.
- [19] G. Wall, "Cycles and capacity: a contradiction in Terms?" *Annals of Tourism Research*, Vol.10,

pp.268-270, 1983.

[20] C. W. Rowatt, S. Delue, and L. T. Gonzalez, "The limited influence of self-monitoring on romantic partner preferences,"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Vol.31, pp.943-954, 2001.

[21] 강미희, 김성일, "설악산 국립공원 지역주민의 관광영향 지각", 한국임학회 하계 학술연구발표회, 1998.

[22] 강신겸,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안동 하회마을을 중심으로", *문화경제연구*, 제5권, 제1호, pp.139-158, 2002.

[23] 고동완, *지역주민의 지각된 관광영향과 지역사회에 대한 태도*, 성균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24] 고동완, 김현정, "지역사회애착과 관광개발에 대한 태도", *관광학연구*, 제27권, 제3호, pp.97-114, 2003.

[25] 김근영, *자기검색과 수줍은 이 또래인기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5.

[26] 김현영, *라이프스타일 유형과 자기 검색 성향의 비교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27] 이걸재, 지진호,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태도의 사회심리적 개인차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8권, 제4호, pp.41-54, 2006.

[28] 이선아, "자기검색척도의 타당성 검토에 관한 연구", *대한간호학회지*, 제28권, 제3호, pp.751-760, 1998.

[29] 이주일, 민경환, "자기검색척도와 자기의식척도의 비교분석", *한국심리학회 추계심포지엄 연차학술 발표대회*, pp.35-44, 1988.

[30] 전영철, 정병웅, "사회교환이론의 적용을 통한 관광개발영향에 대한 연구", *문화관광연구*, 제1권, pp.99-116, 1999.

[31] 정세욱, *지방자치학*, 서울:법문사, 2005.

[32] 조광익, 김남조, "관광의 영향이 지역주민의 태도와 관광개발에 미치는 구조 효과분석", *관광학연구*, 제26권, 제2호, p.34, 2002.

[33] 조봉진, 정경애, 구자열, "자기검색도와 선호하는

광고소구유형의 관계", *한국마케팅관리연구*, 제3권, 제1호, pp.233-260, 1997.

[34] 조정숙, 성옥년, "연령에 따른 셀프-모니터링 수준과 성역할 유형의 발달적 경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제5권, pp.99-109, 1992.

[35] 최규성, *관광개발에 대한 지역주민의 태도 모형화 연구 - 강원도 폐광지역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경영학박사학위논문, 2004.

[36] 최창호, *지방자치의 이해*, 서울: 삼영사, 2003.

[37] 한원택, *지방행정론*, 서울:법문사, 2000.

저자 소개

이 걸 재(Keol-Jae Lee)

정회원



- 1995년 2월 : 세종대학교 관광경영학과(경영학사)
- 1998년 3월 : 일본릿쿄대학 사회학과(사회학석사)
- 2003년 3월 : 일본릿쿄대학 관광학과(관광학박사)

• 2003년 9월 ~ 현재 : 건양대학교 관광학과 교수
 <관심분야> : 관광개발, 관광정책